

[특집]

교회 대학교와 대학의 쇄신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s Gaudium*)*

— 교회법 분야 적용 —



주세페 베르살디

[교황청 교육성장관·추기경]

머리말

1. 교황령 “진리의 기쁨”에 대한 설명

1) 4가지 기준

2. 개정된 혼인 소송 절차 따른 교회법 연구에 관한 훈령

결론

머리말

2017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황령 ‘진리의 기쁨’ 반포는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확실히 내딛습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현대사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자극처럼 교회에 제공하는, 이 문헌에 대해 성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령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성찰을 발표하며 나아가 가톨릭교육성이 교회법 분야에 반포한 가르침, 특히 혼인무효선언과정 개혁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시작하실 연구를 위해 제가 드리는 종합적 제안을 말합니다.

*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학술심포지엄(2019.11.9.)에서 발표한 기초연설임.

1. 교황령 “진리의 기쁨”에 대한 설명

무엇보다 새 교황령 ‘진리의 기쁨’이 반포된 이유가 (교회 대학 및 대학교의 운영규정을 담은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전의 교황령이 “그 예언적 시각과 그 명백한 지시에 있어서 전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새 교황령이 필요한 다음의 이유를 열거하셨습니다.

— 새 문헌이 1979년으로 거슬러가는 ‘그리스도교적 지혜’에 준한 규범적 지시사항을 통합할 필요성

- 지난 40년 간 기록된 학문적 연구 발전
- 전 세계적 차원으로 변화된 사회 문화적 배경
- 성좌가 동의한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약

필요한 쇄신은 여전히 교회연구의 순서대로, 교회의 선행된 가르침에 대한 지속성과 일관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밀접히 연결되어, 하느님 안의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인류가족의 진정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내놓는 교회의 신원에 따라, 성령의 인도 아래, 대화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시대의 징표에 대한 식별과 대화 속에서, 하느님 백성의 지혜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학문 체계가 꽃피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 교황님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풍요로움을, “역사의 이 새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교회 생명 쇄신의 더욱 현실적인 공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교 지혜’(Sapientia Christiana)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에서 당부했던 “교회학문에 대한 충실하고도 창의적인 검토”(참조 13~22항)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지혜’(Sapientia Christiana) 덕분에 (전통적 또는 공의회 이후 새로운 종류의) 교회 대학교 대학교의 활동이 성장했습니다. 계시에 관한 학문과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규율들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였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 드러난 특징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당신의 가르침이라는 배경에서 이런 교회학문 쇄신을 제안하고자 하십니다. “신중하면서도 앞을 내다보는 결단력을 가지고, 모든 차원에서 교회 학문의 쇄신을 촉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기쁨의 증언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 사명의 새로운 단계의 일환으로서, 본인은 ‘복음의 기쁨’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이러한 교회 사명의 새로운 단계를 하나의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진리의 기쁨, 1항) 따라서 교황권고의 ‘기쁨’(gaudium)을 일부러 언급한 새 교황령의 시작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진리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역사의 변천 안에서도 이미 우리 마음은 더 이상 꺼지지 않는 빛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빛과 기쁨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루는 결합에서 또 창조의 공동집에 함께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루는 일치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장차 하느님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진리의 기쁨, 1항). 기쁨의 주제는 교황님의 가르침 전체를 뒤덮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기쁨으로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열정으로 이를 자신의 사명으로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진리의 기쁨, 1항).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난 개인주의적 불행에 신자들조차도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2항)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

히려 신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에도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을 되찾고 이를 더욱 키우도록 합시다. [...] 현대 세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이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고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복음의 기쁨, 10항).

그러므로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과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회학문의 전문영역에 직접 관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역시 교회 전체의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회심”이라 불리는 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선택’을 꿈꿉니다. 교회의 관습과 행동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존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복음의 기쁨, 27항). 그 나머지는 교황님께서 몸소 현 교황령에서 지시하십니다. 선임 교황이신 바오로 6세,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이 기여한 바를 기억하시며, “하느님 백성이 맡은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꾸준히 묵상해 온 덕분입니다. 이제 이 풍요로운 유산이 더욱 견고해져, ‘출발하는’ 교회의 선교적 변모가 요구하는 그 현명하고도 용감한 새신을 교회학문들에 스며들게 할 때입니다”(진리의 기쁨, 3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의 선교적 변화의 이런 전체 과정 안에, 하나의 논리로써,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을 삼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와 전략적인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실제로, 교회학자들은 “사제들과 봉헌 생활자들과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적절히 양성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 학문들은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일종의 문화 연구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사건에서 비롯되어 지혜와 지식의 은총으로 자라나는 실재를 능동적으로 해석하

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총으로 자라나는 실재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총을 통하여 수많은 방식으로, 곧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um)에서 주교들의 교도권에 이르기까지 또 예언자들의 은사에서 박사들과 신학자들의 은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백성 전체를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진리의 기쁨, 3항). 이 “문화연구소”에서 신앙과 지성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신앙의 토착화와 문화의 복음화를 가능하게 하고,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중세 말기에 시작되어 신앙도 이성도 폐해를 준 결과물이 되었다고 한탄하신 그 “불길한 분열조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계시의 도움이 빠진 이성은 옆길들을 따라가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목적지에 대한 시각을 잃는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이성이 빠진 신앙은 감정과 체험만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보편적인 명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신앙과 이성, 48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복음화의 새로운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식별과 정화와 개혁의 과정”(진리의 기쁨, 3항)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식별 속에서 곧 “교회학문 체계의 올바른 쇄신이 전략적인 역할을 합니다”(3항). 실제로, 식별은 밝혀진 자료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수혜 받을 사람들이 사는 역사의 변화하는 현실들 안에서 그것을 육화하게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급격한 문화적 변화는, 영원한 진리의 새로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 주는 언어 안에서 우리가 진리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찾으라고 요청합니다”(복음의 기쁨, 41항). 이런 필수작업 안에서 신앙과 이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교회의 참된 정화와 개혁을 인도하는 식별이 허용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자들에게 “융합한 문화적 혁명”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그것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니라고 자극하십니다. “오늘날 삶과 세상과 인간을 개괄적으

로가 아니라 이성과 신앙의 진리들에 근거하여 연구하고 확신하는 영적 분위기에서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참다운 복음 해석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진리의 기쁨, 3항). 그래서 교황님은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에 “패러다임의 극단적 변화를 향한 너그럽고 전향적인 노력”을 요청하십니다. 그건 이미 표현된 “하나의 용감한 문화적 혁명”을 정의합니다. 그건 신학자와 철학자가 “열린 생각, 곧 언제나 하느님과 진리의 위대함(maius)에 열려 있고 늘 발전하는 고착화되지 않은 사유”를 지닐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사실 “철학과 신학은, 지성을 구축하고 강화하며 뜻하는 바를 밝혀 주는 확신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만 비로소 결실을 이룹니다”(진리의 기쁨, 3항).

교회학문에 부여해야 할 선교적 전향에 관한 그분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이 제공해야 할 쇄신과 기여의 시작을 위한 4개의 기준을 지적하십니다. 교황령이 상기의 교육기관들을 위해 확립하는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본정신으로 여겨져야 할 고귀하고도 자극적인 지시입니다.

1) 4가지 기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리키시는 첫째 기준은 그분의 가르침을 특징짓는 일반적 메시지의 내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의 지도에 맡겨진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은 “케리그마의 핵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가장 우선되고 영속적인 기준은 관상, 그리고 케리그마의 핵심으로 이끄는 영적 지적 실존적인 안내입니다. 언제나 새롭고 매력적인 예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인 케리그마는 교회와 인류의 삶 안에서 계속 구현되고 있습니다”(진리의 기쁨, 4항).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핵심”에 다가가야 할 이 필요성을,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는 그리스도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할 수 없는”(34항) 부수적인 요소들 속에서 자신을 잃는 일 없이. 바로 거기에서 이 복음의 심장이 지닌 내용을 명백히 가리키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구원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36항). 이 핵심에서 다른 모든 가치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교리는 물론이고, 도덕적 가르침을 포함한 교회의 가르침 전체에도”(36항) 진리의 서열 또는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교황님은 교회학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희생하지도 않고, 또 내용을 덧붙이거나 역사화하지도 않고서 각자의 영감의 근원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랑의 신비는 “삼위 일체에 뿌리를 내린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의 거룩한 위대함을 볼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줄 알며, 함께 사는 삶의 불편을 하느님 사랑에 의지하여 견디어 낼 줄 압니다. 또한 이 형제애는 하느님 사랑에 마음을 열어, 좋으신 하느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4항), 이 사랑의 신비에 본질적 구심점이 있다는 시각을 잃고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이 명하는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 사이의 밀접한 연결은 교황님이 교회학자들을 교회의 보편사명으로 부르시도록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교회 사명의 필수적 부분인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라는 명령이 비롯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4항). ‘복음의 기쁨’(특히 4장 전체)에서 요구한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기준과 더불어 볼 수 있듯이, 케리그마의 핵심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면서, 실제로는 뒤이어 거기에서 학자들에게 창조된 현실 전체를 포함하기에 이르도록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학문을 하느님의 원초적 계획인 사랑으로 데

려가야 할 세상 전체의 구체성에서 제외시키지 않고서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원하신 쇄신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 역시 필요로 하는 교회학문기관의 개방성에 관한 말입니다.

교황님이 제시하신 두 번째 기준은 “모든 분야와의 대화”입니다. 교황님은 즉시 그것이 “단순히 전략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 의미와 실질적인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구로서 나누는 대화”임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적 메시지는 선포의 내용만을 지향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선포를 제안하는 대화의 방식을 포함합니다. “참된 만남의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참되고 생생한 모든 문화들 간의 만남의 문화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빛의 공간 안에서 각자가 지닌 선물들을 상호교환 하는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전략적이 아니라 복음적인 대화의 본성을 옹호하시고자, 베네딕토 16세께서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에서 “진리는 말씀 logos이기에 대화 dia-logos를 생겨나게 하고, 거기서 소통과 친교를 이룹니다”라고 상기하였음을 인용합니다.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은 이렇게 진리탐구가 종교 간, 문화 간의 대비를 거쳐 이루어지기도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받습니다. 곧 다른 교회들과, 또 다른 종교적 확신에 동의하는 교회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신자든 비신자든 다른 학과의 학자들”과도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주장을 제시된 진리의 빛으로 평가, 해석, 판단하기 위한 노력” 안에서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기관들 사이의 대화가 가톨릭 정체성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세상의 지배적 문화의 부정할 수 없는 세속화 앞에서, 우리 교육기관들이 작은 요새에 자신을 가두고, 좋은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피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물론 그것은 대화가 소금이 짠 맛을 잃게 만드는 세속적 사고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선입견 없이 남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도록 초대하시며, 또한 “계시된 진리의 빛에” 비추어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확언하십니다.

이 둘째 기준의 결과에 대해 교황님은 명백하고도 도발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정신에서, 교회학문체계가 제시하는 학과과정의 구조와 방법을 재검토해 보는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이러한 학과과정은 교회학문들의 신학적 토대와 그 지침이 되는 원칙들 안에서, 또 다양한 단계의 학제와 교육과 교수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4항). 내용만이 아니라, 이런 논리와 지향의 빛에 비추어 다시 다루어야 할 교육의 방법들에 있어서도 교황님의 이 제안이 지니는 흐름은 누구에게도 그냥 스쳐가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계속 하십니다. 오늘날, 실제로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을 밝히고 본질적인 가치들을 고취하는 복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화는 새로운 이야기와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곳에 가닿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시의 가장 깊은 핵심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74항). 정말 흥미로운 하나의 자극으로 교황님께서 교회학문기관들에게 지식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새로움에 대해 뒤쳐져 있지 말라고, 오히려 앞선 용기 있는 이 대화를 새로운 복음화의 명령으로 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교황님께서 요청하시는 셋째 기준은 둘째 기준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건 “계시의 빛으로 현명하게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과 간 접근방식과 교차학과 간 접근방식”(4항)입니다. 여기서 교황님은 좀 더 가까워서 과학적 방법론에 관심을 지니고 이론적 차원에서 공고히 여겨지지만 아직 학문분야에서 상용되지 않는 하나의 규율로 주의를 환기하십니다. “교회학문체계가 내용과 방법 양쪽 모두에서 학술과 양성과 연구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특징은, 다양하고 상호 연관되며 수렴되는 표현들을 구별하면서도 존중하는 가운데 지식의 일치를 이룬다는 중요한 지적 원

칙에 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교회 내부에서 태어난 대학들은 지식의 보편성을 수집하는 일을 자신의 목표로 여겼습니다. 지식들을 연구의 일치 안으로 전향시킴으로써, 알아야 할 전체 현실을 종속하는 유일한 진리에로 전향시키는 일이 자신을 안심시키기라도 하듯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역사적 독창성을 지적하십니다. “교회학문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학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이는 계시의 사건으로 드러난 실재의 다채로운 풍요로움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또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초월적인 원천과 역사적이면서도 초역사적인 지향의 일치 안에 조화롭게 역동적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4항).

그건 신학분야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역사적 현실성 안에서 드러난 자료의 연구와 육화를 발전시키려는 선한 의도와 더불어 특히 적절한 요청이므로, 좀 더 완전한 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확장과 함께 어떤 신학적 사상의 균열에 빠져버리지 않고, 최소의 관심으로도 다양한 전문분야 사이의 명백한 상호관계를 통한 일치에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육화하는 현실의 다양성에 관해 필요한 분석을 일치에로 데려가야 할 이 필요성은, 교황님께서 첫 기준으로 가리키신 것처럼, 보편 현실에 관한 모든 시선을 일치시키는 중심이 되는 진리의 원천 곧 복음의 심장(케리그마)에 일치되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같은 필요가 ‘그리스도인의 지혜’(*Sapientia Christiana*), 67항 2조에서 요구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필요를 “현대 대학교 학문들의 세분화되고 흔히 와해되어 버린 현실과 관련해서 그리고 통용되는 신념들과 문화적 선택들의 — 불확실하고 상충되며 상대적인 — 다원주의와 관련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지혜와 성찰의 부족, 종합적인 지도원리를 형성해 낼 수 있는 사유의 부족이 있습니다”(31항)라고 말하는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학문의 사명 자체

에 지식의 일치에 대한 이 요구를 연결합니다. “종합적인 지도 원리에 대한 필요성은 교회학문체계의 본질적인 교회학문체계의 본질적인 참 목적을 밝혀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날 문화적 인도적으로 교회학문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입증해 줍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이유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은 학문 세계에서 자신의 “문화적 중대성”때문에 이런 학과 간 접근방식을 요청받습니다. 학과 간 접근방식은 단순히 복수학과 간 접근방식으로, “연구의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단순한 복수학과 간 접근방식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교황님께서 “하느님 계시에서 흘러나오는 지혜가 주는 빛과 생명 안에 모든 학과를 자리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접근 방식으로” 학과 간 접근방식이라 하는 강한 형태의 교차학과 간 접근방식은 적절합니다.

여기서 교황님은 두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가 이런 방향으로 기여한 것을 지적합니다. 복자 존 헨리 뉴먼과 복자 안토니오 로스미니입니다. 뉴먼은 교회학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학문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모든 지식에 대한 탐구를 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로스미니는 “본질적인 것은 자신이 배운 학문의 내용과 전망과 목표를 하느님 말씀에 기초하여 또 그 말씀이 정점을 이루는 강생하신 하느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림으로써 “학문과 성덕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구원을 향한 교리의 참 정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의 치명적인 분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거룩한 교회의 오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리키는 넷째 기준은 “교회학문을 육성하고 촉진하는 전세계 기관들 사이에 ‘관계망 구축’의 시급한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진행 중인 지구촌화 과정은 교육기관들에게도 부정적으로 그 현상을 겪지 않고, 제외된 채로 남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 편에

서 “여러 나라의 교육 기관들과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교육기관들과 협력하는 적절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님께서 이런 국제협약을 위해 극도의 긴급성으로 지적하시는 것에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인류에게 대두되는 문제들은 모든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현대인에게 영향을 주는 시사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적의 전문 연구소” 설립을 제안하십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를 상기하시며 교황님은 이미 인류가 하나의 민족처럼, 공동의 집에 산다고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의존이 우리에게 공동 계획을 가진 하나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생각으로 교회는 이런 긍정적 지구촌화 과정에 접목되기 위한 구체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과 연결된 이유입니다. “교회 자신을 다양성 안에서 이루는 일치의 누룩, 그리고 자유 안에서 이루는 친교의 누룩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보편성을 실현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을 개별 교회이면서 보편 교회이고, 하나이면서도 많은 교회이며,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교회라는 양극의 긴장”을 그 자체로 요구하고 증진합니다. 여기에 학과간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가리키면서 상기하신 다양성의 일치를 암시하는 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1코린 2,16)에 비추어 실재를 알고 해석하는 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들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모델은 구체(球體)가 아닙니다. 구체는 모든 점이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으며 그 점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델은 다면체입니다. 다면체는 모든 부분이 집합이고 각 부분은 그 고유성을 간직합니다.” 지배적인 단일 사상의 집단화를 위해 문화적 차이점과 소수성을 억누르는 데에 이르는 부정적 지구촌화의 위험에 대한 교황님의 걱정이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교회사에 대한 준거는 복음적 메시지의 문화교차성을 불러내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하

나의 문화적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복음 선포와 교회의 전통에 변함없이 충실하면서도,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리는 문화와 민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네딕토 교황님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학에 제일 먼저 호소합니다. “신학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과 살아있는 전승 안에 뿌리 내리고 근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신학은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 과정, 그리고 특히 그 힘든 변화들에 함께 하여야 합니다. 더 분명히 말해서, 신학은 수많은 갈등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관련된 갈등도 있습니다.” 교회 대학과 대학들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렬하고도 자극이 되는, 자신이 사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낯선 존재로 여겨지는 위험에서 나가라고 강렬히 도발하는 말씀들입니다.

2. 개정된 훈인 소송 절차 따른 교회법 연구에 관한 훈령

교황령 ‘진리의 기쁨’ 77항은 교회법 대학의 목적이 “복음의 법에 비추어 그리고 학생을 심도 있게 교육함으로써 교회법 과목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자, 교수, 기타 교회의 특정 직책에 종사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사람을 양성한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법적 규율들이, 복음의 법에 영감을 받았을 때,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새 교회법 반포를 알리는)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에서 쓰신 것을 확인하는 교회내의 본질적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곧 “교회법의 목적이 교회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에서 신앙, 은총, 특은 그리고 특별히 애덕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법의 목적은 애덕, 은총, 특은의 우위성을

지적하는 한번 또한 교회의 사회 생활에서나, 거기에 속한 각 개인의 생활에서나 동시에 그 조직적 발전이 더 쉬워지도록 교회적 사회에 그러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어 교회생활 안에서의 교회법의 합법성을 숙고하는 일에서 부정할 수 없는 위기를 겪은 후, 교회 공동생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개를 위한 근본 도구로써 교회법 체계를 숙고하는 일이 재개된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그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령 ‘진리의 기쁨’에서 교회교육기관들이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1항)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전망에서, 결국 교회법 지식은 교회 사명의 효과적 도구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혼인무효선언 소송절차 개정)에 관한 자의교서 ‘인자한 재판관이신 예수님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Mitis Iudex Dominus Iesus et Mitis et Misericors Iesus*’과 더불어 혼인무효 선언 소송절차에 관련한 교회법 규범을 개정하셨습니다.

가톨릭교육성은, 그런 지침에 경의를 표하며 고유의 권한에 따라, 모든 교회법 연구소에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 관한 지침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알다시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개혁 목적은 혼인무효 건의 조사과정을 더욱 피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제나 진리와 정의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구조를 가볍게 줄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편에서 교회의 정의에 청원하는 일을 더욱 접근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 불림 받은 사람들의 역할과 자질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법기관에서 상황을 훑어본 뒤, (최근 연구원들을 구하는 것이, 특히 정규 상주연구원들을 구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혼인무효 소송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 곧 주교, 예심관, 배심관, 법원 사무처장, 공증인, 감정

인, 변호인, 자문위원 등의 그림을 그립니다.

자문관의 범주에 관한 것은, 지침이 그들을 동심원처럼 자리한 세 범주의 무리로 나눕니다.

— 본당신부 혹은 전적으로 교회법이 아니라도 권한을 지닌 다른 이들: 자신의 혼인무효를 확인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자문관들입니다. 1단계의 자문관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 기존 구조의 구성원들: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가정 자문기관에서 일하면서 사목, 심리적 자문을 해주는 성직자, 수도자 혹은 평신도들으로써,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에 중요한 부분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단계 자문관들입니다.

— 형식적으로 혼인무효의 이유와 가능한 증거들을 가려내는 단계를 시작하려고 교회법적 절차의 진정하고 고유한 소개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는 변호사들입니다. 3단계 자문관들입니다.

지침은 성좌나 관련사무국이 세우거나 승인한 교회법연구소에서 교회법 석사학위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교회법 현행법을 확인합니다. 판사대리, 판사대리보, 판사, 입법 발기인, 연대 변호인 등입니다. 다른 입법사무국이 교회법 학위 없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주교의 책임에 맡겨집니다.

가톨릭교육성은 이 지침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원하신 개혁의 실천을 위해 유용한 범주를 제공하면서 학위를 요청하는 일 없이, 교회법 재판에 개입하는 이들의 역할에 관한 정리를 돕고자 합니다. 법적 관례에 적합한 인재를 준비하려는 전망 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이 과제의 여러 담당자들에 대한 양성의 형태를, 3단계에 걸쳐 혹은 위에서 언급한 동심원에 따라 펼쳐갈 특수한 역할과 더불어 양성과정들을 분배함으로써, 차

별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역교회와의 협력 안에서 전통적 교육과정들 이외에도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코스나 인적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교회법 대학과 그에 상응하는 기관들이 초대됩니다. 짧지만 수준 높은 과정들이며, 수료하면 본격적인 교회법재판의 사전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자문관)들을 위한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법 지침들의 몇몇 일반적 기준을 기초로 법규가 정해집니다: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학위 필요), 교수와 학습 형태, 전문 과제의 형태에 준한 과정 묘사와 더불어 주어지는 최종 커리큘럼, 말할 것도 없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커리큘럼에 묘사된 증거와 더불어 요청된 권한획득 증명, 시험성적표, 이수증이나 학위는 아니지만 전공수료증 등입니다.

이런 봉사를 위해 교회법 대학들은 자질을 확인하는 가톨릭교육성의 승인을 요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지침의 법규 37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숙고하는 주제일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요약해 서라도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새 교황령 ‘진리의 기쁨’과 그에 이어서 2019년 연말까지 정관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부여를 통해 원하신 교회학문기관 쇄신은 교회 생활에 봉사하는 교회법에도 새로운 출발의 기준을 적용함에 대해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가톨릭교육성 규정은 교회법 학문이 교회 생활 조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본보기에 불과합니다. 공동생

활의 구체성 안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의 다양한 신분에 있어서 복음 메시지를 현실화하는 일은 교회법이, 애덕의 원칙과 진리에 준한 정의의 원칙으로 생동감을 얻을 때, 이를 수 있는 근본 봉사의 하나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혜롭게 상기하듯, 실제로 두 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과 희망, 애덕의 공동체, 가시적 유기체”로써의 유일한 교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합니다”(교회헌장, 8항).

그와 같이 교회는 “개인과 사회 생활에서나 교회의 활동 자체에 있어서나, 당연한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연구를 가꾸는 일은 교회의 부차적인 노력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의 기저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교회법전을 반포하시면서 그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특히 그 교회론적인 가르침에 명백하게 제시된 대로 교회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새 법전이 “이러한 가르침 곧 공의회의 교회론 자체를 교회법적인 언어로 바꾼 위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셨습니다(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교회법 학문이 지닌 자기 쇄신의 이런 능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더불어 소진된 것이 아니라, 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현대세계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답하면서 교회 전체의 “선교적 회심”을 위해 원하신 쇄신을 쫓아가고자 오늘도 자신을 활용해야 합니다. ‘진리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늘날 우리는 긴 쇄신의 여정이 필요한 커다란 문화적, 정신적, 교육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도 해당됩니다”(6항)라고 상기하십니다. 그건 과정이며 우리 자신이 불림 받은 일에 대한 형식적 정관 적용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를 다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에 나온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때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단언하실 때 그것은 “때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시간을 장악하기보다는 전진을 시작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전진하여 역사적 주요 사건들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고한 신념과 끈기를 가지십시오”(223항).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학술기관들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 새 교황령에서 호소하는 부분을 실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